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 해양수산부 http://www.mof.go.kr	**보 도 참 고 자 료**	정책브리핑

9.26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. 25.(월) 오전 11:00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 일시	2017. 9. 26. (화)	담당 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
담당 과장	강감찬 과장(044-203-4330) 송명달 과장(044-203-5229)	담 당 자	김완상 사무관(044-203-4334) 이승혁 사무관(044-203-5296)

고망간강 소재 연료탱크 탑재 LNG연료추진 벌크선 도입 시범사업 닻 올린다

- 산업부·해수부, 『제3차 LNG연관산업 육성 추진단 협의회』 및 『민간부문 LNG 추진선 도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』체결 (9.26) -

- 포스코, 고망간강 소재 LNG 연료 탱크 탑재 세계 최대 규모(18만톤급) LNG연료추진 벌크선 신조 발주 결정 계기 민·관 상호 협력체계 강화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이하 산업부)와 해양수산부(이하 해수부)는 9.26(화) 14:00 서울 해운빌딩에서 'LNG추진선박 연관산업 육성 협의회'를 개최했다.

< 협의회 개요 >

○ **일시 / 장소 :** '17. 9.26(화) 14:00~15:00 / 서울 해운빌딩(10F 대회의실)

○ **참석자 : [정부]** 강준석 해수부 차관, 이승우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 등
[업계] (POSCO)오인환 사장, (한국가스공사)김영두 부사장, (KDB 산업은행)임맹호 부문장, (한국선급) 회장 이정기, (LNG벙커링산업협회) 박인환 회장, (선백해양플랜트연구소)서상현 소장

○ 협의회는 '최근 액화천연가스(LNG) 벙커링 동향과 대응전략', '국내 액화천연가스(LNG) 벙커링 경험과 개선사항' 등의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, 포스코(POSCO)가 검토 중인 액화천연가스(LNG)연료 추진 벌크선 도입 시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.

□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“시범사업 추진으로 연관 산업 기반이 조기에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 평가하며, “향후 사업성과가 관련 업계에 확산되도록 지원해나갈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□ 한편, 관계기관은 주요의제 논의에 앞서「**민간부문 LNG추진선 도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**」을 체결했다.

○ 협약 체결은 포스코(POSCO)의 고망간강*을 액화천연가스(LNG) 연료 탱크소재로 활용한 실적(Track Record)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최된 제2차 협의회에서부터 관계기관이 논의해온 사항으로,

* 고망간강 : 영하 196도 극저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강재로 LNG 저장 및 이송에 적합

- 향후 포스코(POSCO) 시범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지원하고 사업 성과를 다른 업계로 확산하기 위해 8개 기관*이 참여했다.

* 산업부, 해수부, POSCO, 한국가스공사, 한국선급, 산업은행, LNG벙커링산업협회,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

○ 향후 각 기관은 선박 도입부터 건조, 운항 서비스 등 전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또한 동 협약은 국제사회의 해양환경규제 강화 결정을 **국정과제인 ‘해운·조선 상생 협력’**의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결과물로 향후 산업부는 해수부와 협력하여 연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업계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.

○ 산업부 관계자는 “국제표준기술로 등재된 고망간강 소재가 선박 연료탱크로서 탑재실적을 추가 확보함은 물론, 수요 부족 등으로 침체되어 있던 국내 액화천연가스(LNG)벙커링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”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김완상 사무관(☎ 044-203-4334) 또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이승혁 사무관(☎ 044-200-522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